

하계올림픽 유치경쟁 차별화 전략 논의

전북자치도, IOC 개최도시 선정 대응 용역 등 착수보고회... 국제 유치 동향·경쟁도시 사례 분석

전북특별자치도는 8일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기본계획 수립 및 IOC 개최도시 선정 대응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올림픽 유치를 위한 차별화 전략 마련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올림픽 유치 전략 마련, 하계올림픽·패럴림픽 기본계획 수립, 정부 및 IOC 심사 자료 작성, 경기·비경기 시설 자료 제작 등을 중심으로 2026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용역은 IOC 컨설턴트로 공식 등록된 국제스포츠이벤트 업체인 (주)모노플레이언이 맡아 수행하며, 해당 업체는 국제스포츠 유치·운영·마케팅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주 유치를 위한 핵심 전략과 콘셉트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전북만의 경쟁력을 부각하기 위해 IOC 규정과 국제 유치 동향, 경쟁 도시들의 사례를 분석하며 차별화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전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방안으로 K-컬처의 전 세계적 확산 가능성과 연계한 브랜드 전략이 제안됐다. 물리



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기본계획 수립 및 IOC 개최도시 선정 대응 용역 착수 보고회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보고회를 갖고 있다.

적인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문화콘텐츠를 연계해 K-컬처의 분향 전주에 대한 인식을 높여 가겠다는 전략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개최가 아닌 지역 성장의 촉매제가 돼야 한다"며, "전주가 세계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시민의식과 전문

화의 우수함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도민과 국민 모두의 지지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9~11일 '장수군수배 전국지구력 승마대회' 개최

천천면 장수국제승마장서

3개 종목 선수 150여명 참가

말산업 특구인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은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천천면에 위치한 장수국제승마장에서 '제2회 장수군수배 전국지구력 승마대회'를 개최한다.

장수국제승마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승마장을 보유하고 있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고 원활한 경기 진행이 가능해 선수들과 말의 컨디션 유지에 최적의 장소라고 평가받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승마협회(회장 박영재)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장애물·지구력·이벤트경기 3개 종목 15경기가 펼쳐지며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다양한 연령의 150여명의 선수와 마필 100여두가 출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각 부문 수상자들에게 상금과 부상이 주어지며 전국 승마대회 최초로 상금의 7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참가 선수들과 방문객에게 장수군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소비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천천면에 위치한 장수국제승마장에서 '제2회 장수군수배 전국지구력 승마대회'가 열린다. (사진=대한승마협회 제공)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2회를 맞이한 이번 승마대회로 장수군이 승마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승마대회 유치는 물론 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더 많은 승마인들이 대회 이후에도 장수군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2018년 '말산업 특구'로 지정됐으며 국내 최대규모의 실내 승마장인 장수국제승마장을 비롯해 승마체험장, 장수승마레저체험촌 등 말산업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각종 승마대회를 유치해 승마산업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국민체육공단, 스포츠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인 '2025 스포츠-업(SPORT-UP)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술·장비, 건강·피트니스, 의료·헬스케어 등 10개 분야로 진행된다.

공고일 기준 예비 창업자 및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제외 업종,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창업 아이템 등은 참가가 제한된다.

체육공단은 서류 평가를 통해 20팀(예비창업 10팀, 초기창업 10팀)을 선발해 고도화 멘토링을 거쳐 발표 평가를 통해 예비 및 초기창업 구분 없이 최종 5팀(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2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수상팀에게는 총 18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상위 3개 팀에는 '2026년 스포츠산업 창업 지원 사업'의 사업화 지원금(4500만원)과 함께 전문 창업 교육 기회가 제공된다.

신청 기한은 오는 6월 10일까지며, 공모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뉴시스

태권도원 내 유채꽃 '활짝'

방문객 발길 이어져... 재단, 이달부터 무료입장 변경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헌)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5월부터 입장료를 무료로 변경하는 등 태권도 문화 확산을 통한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가운데 태권도원 내 유채꽃도 피어 방문객들의 발길을 잡고 있다.

8일, 태권도원 야외 복합체험시설 '플레이원'에 위치한 유채꽃이 활짝 피었다. 올 초 이상 기후로 인한 한파와 봄에 내린 눈 등 기온이 떨어지며 유채꽃 개화가 늦었고 성장 상태 또한 예년만 못하지만 태권도원을 찾은 방문객들이 유채꽃을 배경으로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다.

김중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금요일 비가 예보돼 있지만 이번 주말 태권도원을 찾은 방문객들은 유채꽃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태권도원 상설공연과 다양한 콘텐츠 등을 즐기고 특히 유채꽃을 비롯해 231만㎡(70만 평)에 달하는 태권도원 곳곳에 핀 꽃과 나무 등 파릇파릇한 봄기운도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채꽃밭을 찾고자 하는 방문객은 태권도원 내 순환버스에 탑승 후 '플레이원(전통정원) 승강장'에 하차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도 태권도 대표 선수단, 진안서 전지훈련

군, 스포츠 전지훈련 중심으로

전북자치도 태권도 대표 선수단이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진안군에서 전지훈련에 돌입했다.

선수단은 지난 3일 태권도 대표 선수단 52명이 진안 문예체육회관과 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9일간의 전지훈련을 시작했다. 선수단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경남 김해시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청정 자연환경과 쾌적한 훈련 인프라를 갖춘 진안은 선수들의 체력 향상과 경기력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진안군은 최근 몇 년간 유도, 썰매, 역도 등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며 '스포츠 전지훈련지'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이는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안군의 전략적인 스포츠 마케팅의 일환이다.

군은 전지훈련팀에 체육시설 대관료



면제, 체류비 일부 지원, 지역 관광지 입장료 감면, 숙소·식당과의 연계 편의 제공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훈성 군수는 "진안이 스포츠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정병문 체육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훈련이 선수들에게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진안군이 앞으로도 꾸준한 스포츠 전지훈련의 중심지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